

한국교회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공공신학적 고찰

이동춘(장신대)(문화/예술 3-2)

I. 들어가는 말

타의에 의해 분단된 이후 남북 모두는 통일을 지상과제로 내걸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은 상호경쟁적인 면을 보였고, 여기서 갈등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대립적·배타적 통일방안과 상호의견을 수렴하는 통일방안들이 우리의 통일역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반복되고 있기에, 우리에게선 풀어야 할 민족적 숙제가 되어 있다.

이에 본 발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다원적 통일방안에 대해 한국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반응이나 대응하는 입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한국교회의 입장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력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하고자 한다. 그동안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태도는 소극과 적극, 주도와 편승(便乘)이라는 두 사이를 오가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에 대한 성서와 신학의 답은 무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한국교회 내의 다양한 통일관이 각각의 성서적·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다원화·다문화·다종교화 된 현실에서 과연 어떤 성서적·신학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발제는 통일문제, 통일방안은 규범과 맥락을 아우르는 통합적 신학¹⁾의 입장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실천방향은 공공신학이 안내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II. 한국사회의 다원적 통일방안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한국사회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이견이 긴장상태로 상존하고 있다. 통일을 찬성하는 의견과 통일을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대등한 상태이기에 서로에 대해 긴장을 가지고 있다.²⁾ 그러나 통일에 대한 찬반의 비율이 팽팽하기는 하지만 민족애적 입장에서는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을 추구하는 방법론의 차이에 있다.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추구하는 통일방안의 차이는 물론이고 더욱 어려운 것은 남한 내부의 집단들 간의 통일방법에 대한 차이가 백태(百態)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남북한 간의 갈등보다 남남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 내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한국교회 내의 보수 진영·진보 진영·중도 진영이 각각 가지고 있는 통일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한 후, 한국사회의 통일관과 한국교회의 통일관을 비교분석

1) 이는 기독교 윤리학자인 맹용길이 정리한 개념을 따르는 것이다.

2) 2008년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에서 발표한 <2008 통일인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51.6%, 불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25%, 반반의 의견을 낸 비율이 23.4%였다. 그리고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을 이유로 말하는 비율이 57.9%,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가 17.1%, 전쟁 억제를 위해서가 14.5%,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6.8%,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이 2.8%, 기타가 0.1%였다. 박명규 외, 『2008 통일인식 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08)

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본 후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1. 한국교회 내의 통일관 비교

(1) 차이점 - 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의 통일 운동은 보수 일변도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원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한국교회는 대체로 정권유지 차원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안보논리에 의한 멸공·반공·승공이라는 입장에 서서 통일은 남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방적 통일론에 빠져있었다.³⁾ 그러나 보수 일색이던 통일관에서 진보적 통일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⁴⁾ 이렇게 진보보하는 진보 진영의 통일관이 1972년 7월 4일에 선언된 <7.4남북공동선언>에 충실한 통일논의를 주장⁵⁾하는 중에 결국 1988년 2월 29일에 발표된 ‘88선언’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 ‘88선언’이 자극이 되어 1991년 12월 13일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탄생되기도 했다.⁶⁾ 이렇게 진보 진영의 ‘88선언’으로 한국 교회의 통일 논의의 흐름은 크게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진보 진영이 80년대에 들어서서 통일 논의에 대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동안 보수 진영은 다소 침묵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진보 진영은 시대적 흐름인 세계 교회가 주창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적극 반영하여 북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면, 보수 진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통일에 앞서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이라는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이것을 목표로 하여 진보 진영과 차별화된 행보를 하게 되는데, 이는 60-70년대에 취했던 입장인 ‘선민족복음화 후민족통일론’의 연장이었다.⁷⁾

한기총과 NCKK 사이의 통일과 관련된 성명서나 글을 살펴보면, 그 내용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우선 진보 진영은 분단 자체를 죄로 규정한다. 즉 분단을 “한국민족 전체에게 강

3) 허문영 박사는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해방 이후 1950년대 / 멸공통일. 2. 1960년대 / 반공통일. 3. 1970년대 / 보수적 승공통일과 진보적 공존·대화통일. 4. 1980년대 / 보수적 평화통일과 진보의 민주·민족 해방통일. 5. 1990년대 / 보수 평화통일과 진보 합의통일, 보수 진보 연합의 합의통일. 허문영, “기독교와 통일운동”, 『민족 통일과 기독교』 (서울: IVP, 1995), pp.124-127.

4) 예를 들면, 대북 공존 거부와 증오심에 기초한 북한 통일을 지양하고 남북한 상호 인정과 대화를 전제로 하는 평화 통일을 주창하는 내용(1961년), 기독교 통일연구 기구 설치 제안 및 남북한 상호 적대 감정 해소와 화해를 위한 회개 운동 전개 제의(1966년), 국제 공산주의의 다양성과 대화 가능성 및 변화 가능성에 대한 소개(1968년) 등이 그것이다.

5) ‘88선언’ 후 20년이 지난 2008년, NCKK는 이는 발전적으로 평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이를 작성한 서광선 교수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한 기초위원의 증언과 고백>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에서 ‘88선언’은 ‘7.4 공동선언’을 적극 수용했다고 고백하였다.

http://www.kncc.or.kr/Data/BoardView.asp?idx=1912&bbsKind=pds_docu&pg=9&sch=&keyword=

6) “88선언이 터져 나온 뒤, 우리 기초위원들은 숨을 죽이고 교회와 정부당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초위원들을 반공법으로 걸어 일망타진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지만,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조사를 받거나 자술서를 쓰기 위해서 기관 출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의 통일원 장관의 초청으로 통일원 고급관료들 앞에서 88선언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영광이며 승리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88선언은 정부당국에 의해서 허용되었을 뿐 아니라 88 올림픽 전야인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으로 이어졌고, 91년과 92년의 남북합의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광선 교수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한 기초위원의 증언과 고백> 중에서.

http://www.kncc.or.kr/Data/BoardView.asp?idx=1912&bbsKind=pds_docu&pg=9&sch=&keyword=

7) 여기에는 북한 공산주의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볼 때, 남북통일이 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복음 전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기초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전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요되는 집단적 죄악의 상태”로 이해한다.⁸⁾ 그러므로 죄책고백은 북한에 대한 우월감 속에 안주하며 오히려 분단을 정당화한 교회의 모습을 죄악의 상태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분단의 구조를 거부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⁹⁾ 진보 진영의 죄에 대한 고백은 “분단의 비극을 분석하고 고발하고 극복하는데서 출발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부정’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¹⁰⁾ 더욱이 진보 진영의 죄책고백이 가지는 보다 중요한 점은 분단을 고착화한 죄의 모습이 남한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교회 모두에게 있다고 북한 교회와 더불어 고백한 점이다.¹¹⁾

그런데 이에 비하면, 보수 진영이 말하는 죄의 고백은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즉 자신의 교회 문제에만 관심하고 북한선교에 무관심했던 점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다소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책 고백이다. 다시 말해서, 보수 진영은 북한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남한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비록 선언적인 회개를 한다하더라도 실제로는 진보 진영보다 덜 자기 비판적이다.

정리해 보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통일논의의 차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7.4공동성명서>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있고,¹²⁾ 다른 하나는, 북한선교와 통일운동을 어떻게 엮어서 이해하느냐에 있다. 즉 보수 진영은 <7.4 공동성명서>를 북한의 저의를 탐색하여 신중하게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면, 진보 진영은 대화와 공존 가능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하자는 측면이다.¹³⁾ 그리고 보수 진영은 선교를 앞세운 통일을 말한다면, 진보 진영은 통일이 곧 선교라는 이해를 지니고 있다.

8) 서광선, “통일신학: 분단신학을 넘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서울: 민중사, 1988), p.115.

9) NCCK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은 다음과 같이 남한교회의 죄를 고백한다. “.....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상화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적대시한 나머지 북한 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동포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죄(요 13:14-15, 4: 20-21)를 범하였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계명을 어긴 죄이며, 분단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죄이며,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한 죄(요 13: 17)이다.”

10) 박종화, “교회회년과 민족회년을 위한 신학적·실천적 과제” 한국기독교학회 편 『광복 50주년과 민족회년』 (서울: 도서출판 감신, 1995), p.39.

11) 이 점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면서, 상대방을 적대시한 지난날에 대한 회개는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 문제를 넘어, 통일 후 남북한 교회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12)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 통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의미 있는 남북간 합의는 6.15 공동선언보다 남북의 첫 번째 합의였던 7.4 공동성명(1972)이라고 생각한다. 7.4 공동성명에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목적과 방법이 명쾌하게 밝혀져 때문이다. 문익환 목사가 “한 발짝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다가도 날만 가면 이 민족의 나아갈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앞에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7.4 공동성명”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7.4 공동성명서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이 통일의 이념적 지표로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3) 정성환은 그의 책 『한국 기독교 통일 운동사』에서 ‘7.4남북공동성명서’가 발표됐을 당시 기독교의 분위기를 ‘신중론’과 ‘적극론’이라는 두 개의 분위기가 있었음을 설명한다. pp. 209-217. 그런데 백기완 같은 경우는 ‘7.4 남북공동성명서’를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했다: “1972년에 있었던 7.4남북공동성명에 요약되는 박정권의 통일론은 매우 중대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7.4성명의 내용으로 보면 남북은 이념과 체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따라서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했다. 이것은 문맥상으로는 보면 누가 해도 더 이상 빼고 박고 할 것 없는 민족의 대원칙을 함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것이 분단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중에 의해서 아니 최소한도 민중과 정치권력과의 상관 하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의 민중, 민족운동으로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통제와 탄압 하에서 권력계층끼리 거래한 것이 문제였다.” 백기완,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서울: 형성사, 1987), pp.337-338.

(2) 공통점 - 90년대에 들어서서 보수 진영에 진일보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의 회년 운동을 일부분 받아들이고, 진보 진영과 ‘남북 나눔운동’을 연대함으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선 북한선교’의 입장은 여전하지만, 보수가 진보와 연대했다는 것은 그간의 행태로 보았을 때 진일보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그동안 보수 진영은 통일 논의에 있어 정치성을 철저히 배격했던 입장이었는데 90년대 들어서는 분단이 가져다준 냉전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 즉 죄책을 고백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실 보수 진영이 90년대 이전까지 양보할 수 없었던 것 중 하나가 분단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분단의 책임은 북한에 있으므로 죄책을 인정할 쪽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한기총은 1996년 12월 17일 <한국교회의 통일정책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다. 한기총은 이 선언문에서 통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과제”로 규정하면서 “통일을 위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었다. 그러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일보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진보 진영이 교회재건에, 보수 진영은 사회선교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민족통일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는 남한 교회 전체의 선교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⁴⁾ 보다 고무적인 일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가 통일문제를 다룸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⁵⁾ 물론 양 진영이 주장하는 바의 속뜻에 차이가 있지만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고백이 갖는 힘은 양 진영의 이견조차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한다. 더욱이 2000년 8월 15일 NCCK와 한기총은 공동으로 <8.15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고, 2007년 8월 11일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¹⁶⁾ 이렇게 NCCK와 한기총이 공동으로 발표

14) 물론 보수 진영 가운데는 아직도 냉전 이데올로기로 흡수 통일을 주장하며 제국주의적 선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달라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교회에서 논의되어진 평화통일과 북한선교 정책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달라졌는데, 1990년 이전에는 NCCK가 주도해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졌지만, 1990에 들어서면서 보수 진영에서도 이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물론 통일 논의의 중심에는 NCCK가 있었지만 한기총도 통일 논의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특이할만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북사업이 NCCK나 한기총과 같은 연합기구보다는 교단과 통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수 진영의 교단들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북한을 대표하는 교회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5) NCCK에서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88선언)이나 한기총의 <한국교회의 통일정책선언문>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 “우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한다.....회년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계약을 지키는 행위이다.....따라서 회년을 향한 대행진은 회년 대망 속에서, 민족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선교에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주와 역사를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의 화답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통일은.....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16) <8.15 공동선언문>에서는 “우리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우상을 섬긴 죄와 각종 부조리와 비리에 연루되고 남을 판단하여 정죄한 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그리고 역사적인 온갖 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한다.”면서 “교단의 갈등과 분리로 화합과 일치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사회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한기총과 NCCK 두 기관은 8월 15일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킬 것과 예배시 드려진 헌금은 북한의 기아를 돕는 일에 사용할 것을 호소

한 선언문은 통일의 문제를 함께 해보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¹⁷⁾

중도 진영¹⁸⁾에서 볼 수 있는 공통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에 얽매어 통일문제를 억제 하였던 지난 시간을 죄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백하거나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나눔운동 창립선언문-남북나눔운동의 네 가지 실천방안>은 대단히 진일보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언문은 “그동안 남북간의 접촉과 통일을 위한 노력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발효시켰지만 그 합의 내용은 거의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말했는데 이는 그동안 보수 진영이 ‘7.4 남북공동선언’과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의 하나인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인 선언인 것이 분명하다.¹⁹⁾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선언은 이후의 선언문들에서도 계속 나타나는데, 먼저 <1994 한국기독교통일선언>의 7항에서 볼 수 있다.²⁰⁾ 여기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을 강조했는데 이는 ‘7.4 남북공동선언’에서 강조한 “자주”라는 말이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다. 이는 NCK가 ‘88선언’을 작성할 때, ‘7.4 남북공동선언’을 기초로 하였고, 그 철학을 계승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통일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김정일의 사망 가능성을 너무 앞서서 부풀리지 말 것,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할 것 등을 촉구한 것은 그간 보수 진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²¹⁾ 또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 선언

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위하여 민족복음화와 한국 주도의 세계선교를 위하여 협력하고 불우한 이웃과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의 나눔운동을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이와 함께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결로 전환하는 일을 성취해야 할 것”과 “남북의 공직자들은 금번 남북정상회담이 통일로 향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역사적인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살림’의 성서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명확한 한반도 통일관을 수립”하면서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다른 종교공동체와 사회의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더욱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과제는 세계적 차원의 지역 전체에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을 요청함으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현실주의적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교회 (남과 북,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함께 하는 대칭적 협의회를 추진하는 세계교회 방침을 환영하며, 지원”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17) 한기총과 NCK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은 한기총의 분위기 보다는 NCK의 분위기가 훨씬 강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기총이 열떨결에 끌려온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동작업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18) 중도 진영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다음의 5개의 선언문서에 주목하고자 한다: <남북나눔운동 창립선언문-남북나눔운동의 네 가지 실천방안(1993년 4월 17일)>, <1994 한국기독교통일선언(1994년 2월 19일)>,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기독교인의 입장(2008년 11월 21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 선언문(2009년 3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인대’ 비전선언문(2010년 10월 7일)>. 이는 앞의 보수 및 진보 진영의 통일관을 살펴 볼 때 취했던 방식과는 다르다. 앞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면, 중도 진영의 입장을 살펴는 본 절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에큐메니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현실에 주목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자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 입장이 근자에 가진 모임에 의해 발표되고 진행되는 통일관을 주목하려는 것이다.

19) 물론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다소 후퇴한 듯한 아쉬움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나 선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진보 진영의 주장의 틀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는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간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21) 더욱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 것은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가히 파격적인 촉구였다. 왜냐하면 북한 선교를 전투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던 기존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이 선화한데는 보수

문>은 “향후 민족분단의 해소와 민족독립의 완성인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랑과 정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복음명령에 따라 모든 분과성과 이념대결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남북한 당국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과 분단의 원인이 주변 4강대국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그간 보수 진영이 보여 온 입장으로 볼 때 발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²²⁾

(3) 평가 - 살펴본 대로, 지난 반세기 동안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다양한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다양한 통일 방안을 제시한 것과 같다. 물론 여기에는 중도 진영의 통일 방안과 기독교 시민단체들의 통일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방안은 통일을 진정으로 달성하기 보다는 남북한이 각각의 정치적 담론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 내에서의 다양한 통일 방안 논의도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CCK와 한기총이 각각 발표한 통일에 관한 선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다는 사실은 다른보다는 같음의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통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조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나 관점이 다르더라도, 통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통일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방법론을 치열하게 논쟁할 수는 있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맡긴다면, 양 진영 모두가 입장의 차이에 따른 불편함을 가져야할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²³⁾

2.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통일관 비교

(1) 차이점 -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간의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민족적 접근이나, 선교적 접근이나’에 있다. 한국사회는 통일의 문제를 민족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²⁴⁾을 하는 반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선교적 차원에서 해답을

가 진보와 함께 통일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2) 물론 미국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여전히 대단히 친미적 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통일을 촉구함에 있어 모두에게 호소하는 점은 진보와 보수가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23)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교파와 교단을 망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NCCK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1995년을 민족의 회년으로 선포한 것은 통일신학이 상황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가 한반도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만든 좋은 예가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은 북한선교가 남한교회의 이식이 아니라는 고백이며, 나아가서는 통일된 국가의 모습이 확장된 남한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고백인데 진보 진영은 이 점을 오래 전부터 강조해 왔지만, 최근 들어 보수 진영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4) 정부의 통일관은 ‘국가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의 통일관은 ‘민족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우선주의 패러다임’이란, 하나의 민족국가의 틀을 통해서만이 민족집단이 ‘민족’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유지, 실현할 수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고, 따라서 통일은 국가안보와 근대화의 실현, 즉 근대국가의 달성이라는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려는 입장이다. 이 패러다임에서 통일의 염원은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과정에 있어 통일정책은 내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민족주의적 동원기제로 사용된다. 통일이 체제선택의 문제가 되는 이상 통일정책은 어쩔 수 없이 북한과의 제로섬 게임의 틀 속에서 수립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민족우선주의 패러다임’이란, 종족적, 역사적, 문화적 단일성과 정체성을 유지해 온 한민족의 존속과 번영을

찾으려고 한다. 물론 한국교회 내의 진보 진영은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을 당면과제로 본다. 그러나 진보 진영이 통일지상주의라는 극단적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둔 통일지상주의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닌 통일관은 선교적 접근 혹은 선교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민족을 염두에 둔 선교적 차원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공통점 - 정부의 통일관에 있어서도 정부 간에 차이가 있고, 통일 시민단체의 통일관도 시민단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한국교회 내에도 신앙노선에 따라 서로 다른 통일관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동의하는 바는 남북 평화유지 및 통일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남북 간의 경제평화²⁵⁾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점이다.

또한 민족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던 한국교회의 태도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민족통일을 민주화 운동과 함께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후 민주화가 진일보하면서 문민정부가 탄생했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주제가 되었는바, 그로부터 한국교회도 한국사회도 북한을 반공이데올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3) 평가 - 2009년 3월 1일 발표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 선언문>은 그간의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였다.

.....한국교회는 이승만 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가 다소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내고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온 점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명박 정부도 이 시대의 당면과제인 선진화와 역사적 과제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통일에 전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승만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가 이룩한 통일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도 이에 못지않은 긍정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볼 때, 또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의 통일정책들과 단절하지 말 것을 메시지화 한 것으로 볼 때, 이 선언문은 지혜로운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다.²⁶⁾ 또한,

국가체제보다 우위의 가치로 삼는 입장이다. 이 패러다임에 기초할 때, 분단 그 자체가 남북국가의 체제모순에 의한 것이므로 분단해소를 통해 진정한 민족발전이 가능하며 민족국가의 성립과 발전은 민족통일을 통해서만 의의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류길재, “통일 방안의 새로운 모색”,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위임,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1) 김동성, “바람직한 통일 논의의 방향 모색”,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년도 통일학술회의 발표문』, (1997년 10월 17일)

25) 경제평화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으로 부의 균형적 배분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합리적인 생산과 이득의 균형적 분배, 인간적 노동, 경제자원의 군사화 거부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공동번영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남북 간의 경제평화를 위한 교류협력은 남북공영을 통해 민족적 일체감을 복원시키는 것이며, 이는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6) 싫건 좋건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행되어 온 햇볕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유산위에서 현 상황에 맞는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보수 성향 정권과 지지자들의 요구와 지지에 맞는 대북정책 수립일지라도, 과거 정책과 경험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살려 활용하고, 시행착오들을 시정하며, 환경변화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문 중에는 더욱 연구하고 개발

한국교회는 남북한 사이의 기존합의들이 존중되며, 통일의 과정과 방법이 평화적이어야 함을 기도합니다. 분단 이래로 북한정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남한의 북진통일, 승공통일, 흡수통일론과 북한의 적화통일론에도 불구하고,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한국 정부의 통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전쟁을 반대하고,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한 합의로 평화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기억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처럼 오해될 언행은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라며 통일을 흡수통일도 적화통일도 아닌 평화통일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의 남북합의들을 존중하자는 것은 신뢰를 통해서만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볼 때, 이 또한 지혜로운 평가이고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일예이긴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 선언문>으로 보아, 지금까지 한국정부, 한국 통일시민단체, 한국교회가 보여준 통일에 대한 관점은 분열에서 통합, 분단에서 통일, 균열에서 일치, 분리에서 에큐메니즘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이념적 차이에 따라 갈등이 있었고 또한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지만 분단 직후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던 태도가 민족적·인도적 태도로 전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정부, 시민단체, 교회 모두에게서 공히 볼 수 있는 태도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의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통일관은 이념에 의한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념을 넘어 공존과 평화를 추구하는 면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에 있어 한국교회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교회, 넓게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보다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III. 한국교회 내의 다양한 통일관이 갖고 있는 공통의 성서적·신학적 입장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서적·신학적 노력을 한 것은 성서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자들과 기독교윤리학자들에 의해서도 넓게 진행되었다.²⁷⁾ 그리고 이 확신은 통일신학이라는 타이틀 하에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²⁸⁾ 물론 통일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입장에 따라 다양한 통일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현재는 남북간 신뢰부족과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지만 남북관계에는 기복이 따르기 마련이다. 북한 급변 시, 안보·통일환경이 바뀌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각도로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나가야 하며, 준비 없는 남북 간의 호혜협력이나 통일실현은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27) 신옥수, “통일신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6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pp.63-64.

28) 노정선은 통일신학의 반대 개념으로 분단신학을 말한다. 그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한반도의 반식민, 자주, 독립의 노선을 저지시키는 기능을 했던 일체의 신학적 행위를 분단신학이라고 규정한다. 즉 일부 신학자들과 일부 신학이 분단고착적인 신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을 두고 정의한 것이다. 노정선, 『통일신학을 향하여-제3세계 기독교윤리』, (서울: 한울, 1988), pp.60-61. 맹용길은 통일신학이라는 용어보다는 평화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한국의 과제는 통일과 민주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을 돕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형태의 질문은 평화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평화신학이 전면에서 나타나게 된다.” 맹용길, 『기독교의 미래와 주체사상』, (서울: 기독교문사, 1990), p.74. 그러나 본 발제는 통일신학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이는 본 논문의 방향이 남북통일방안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만일 평화신학

논의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중 어느 것이 보다 성서적이고 신학적이냐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²⁹⁾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 의해 찾아진 성서의 본문들에서 화해, 일치, 용서, 사랑, 디아코니아(섬김), 평화, 정의, 회년 등의 개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 중 화해, 일치, 용서, 사랑은 성서적 이해로, 디아코니아(섬김), 평화, 정의, 회년은 신학적 이해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성서적 이해에서 용서와 사랑은 화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

(1) 화해 -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범죄와 분열의 역사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통일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반역하여 살아온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 인간은 이웃과 화해함으로 진정한 화해를 완성한다.³⁰⁾

(2) 일치 - 통일을 화해의 관점만이 아니라 일치(하나됨)라는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은 당연히 국력의 약화를 가져왔고, 이후 계속되는 상호비방, 무력분쟁으로 인한 국력쇠퇴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기원전 721년) 이어서 남왕국 유다도 망해버린다. (기원전 587년)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예언자 에스겔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둘이 하나 되게 하라’는 미래의 통일조국의 모습을 꿈꾼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친히 들어가셨다. 이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수 백 년 동안 서로 증오하며 상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아시고 들어가셨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화해시키시고 일치시키신 것이다. 특히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하고 기도하신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요 17:11) 그리고 후에 이 기도의 주인을 바울은 중간의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소개한다. (엡 2:14-16)

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된다면 본 발제가 다루어야 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이다.

29) 강사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일신학이 아무리 긴요한 과제라 해도 통일신학이 민중신학에 기초를 두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선교신학이 아무리 절실한 과제라 해도 특공대와 같은 서구식 힘에 의한 선교는 성서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보·보수 간의 논의되는 문제들이 얼마만큼의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성경에 나타난 세계관이나 역사관, 회년에 대한 철저한 성서적 이해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진보·보수의 관계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로서, 뿌리와 열매가 다 건전할 때 정상인 것처럼 단단한 진보, 단단한 보수는 성서적 조명 속에서 상호 보완해야만 온 민족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평화 통일을 기대할 수 있다.” 강사문, “광복 50주년(1995)에 대한 회년법적 적용문제”, 한국기독교학회, 『광복 50주년과 민족회년』, (서울: 도서출판 감신, 1995),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 pp.51-52.

30) 노정선, 『통일신학을 향하여-제3세계 기독교윤리』, p.30.

2. 통일에 대한 신학적 이해

(1) 살롬 -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이해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살롬’이 있다.³¹⁾ 그런데 살롬은 다양한 신학적 이해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동의어가 된다. 더욱이 이 살롬의 개념은 디아코니아(섬김)와 회년의 개념과 관계되어 있다. 친구약 성경에 나타난 살롬의 정체성을 종합해보면, ‘현실, 정의, 희생, 겸손’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오늘의 주제인 통일과 연관시켜 볼 때,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임이 분명하며, 통일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평화로서 이룩되어야 하지만 정의를 통해서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제각기 희생이라는 값을 치르되 겸손을 바탕으로 제 십자기를 쫓아져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통일의 성서적 의미로서의 살롬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코 고난과 희생(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³²⁾

(2) 디아코니아(섬김)³³⁾ -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향하여 오신 성육신(Incarnation)의 사건(구속사건)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디아코니아(하나님의 섬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증거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고, 동시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로 소개하셨다.³⁴⁾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사셨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그야말로 디아코니아의 주인답게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살았던 섬김의 기간이었다. 특히 디아코니아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섬겨야 한다.

(3) 회년 - 88선언은 회년과 회년운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³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와 화해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민족분단의 고통에 동참하고 통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년 선포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31) 김영한은 통일신학은 평화신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통일신학은 냉전의 논리가 아니라 살롬의 논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으로 각각 설명한다. 즉 냉전의 논리는 무력을 통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영광의 신학이요, 살롬의 논리는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 상대방을 감화 감동시키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설명한다. 김영한, 『평화 통일과 한국 기독교: 복음주의적 통일신학을 향하여』,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90)

32) 강원돈,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평화윤리적 접근”,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1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pp.112-113.

33) 이 부분은 정일웅의 논문인 “기독교 대북 NGO 활동과 디아코니아 신학”(기독교통일학회 제5차 정기학술심포지엄, 2008년)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http://cafe.naver.com/reuin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5

34)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막 10:45)

35) 회년의 개념을 통일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발전시킨 것은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선포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88선언)에서이다. 이 선언은 1995년을 통일 회년으로 선포하였고, 이로 인해 회년 논쟁에 불이 붙게 되었다.

한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한다.....2) ‘회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 되풀이되는 49년이 끝나고 50년째 되는 해이다. (레 25 : 8~10) 회년은 ‘해방의 해’이다. 회년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계약을 지키는 행위이다. 회년은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내외 정치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노예된 자를 해방하고, 빛진 자의 빛을 탕감하며, 팔린 땅을 본래의 경작자에게 되돌려 주고, 빼앗긴 집을 본래 살던 자에게 돌려 주어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살롬을 이루어 통일된 평화의 계약공동체를 회복하는 해(레 25 : 11~55)이다.

그런데 88선언의 회년운동에 대해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평화 통일을 회구하지만 이 회년운동을 신중하게 다루자는 소극적인 입장도 있다.³⁶⁾ 그러나 회년의 계산법에 대해선 이의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의 현대적 적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회년 자체에 대해선 이의도 이견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회년은 구약성서를 통해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포하신 자유와 해방의 해이기 때문이다.³⁷⁾

IV. 통일실천방안으로서 공공신학을 제안

본 발제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규범과 맥락을 아우르는 통합적 신학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통일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앞의 III장에서 보았듯이 통일에 있어 한국교회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교회, 넓게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보다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보다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발제는 이러한 현실에 적합한 신학적 접근이 공공신학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물론 공공신학은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오랜 세월 터를 닦아온 기존의 신학에서 발전된 신학이다.³⁸⁾ 그러나 기존의 신학이 갖고 있는 한계를 발견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자 제안된 신학이 공공신학이다. 기존의 신학의 한계라 함은 시대와의 소통에 대해서이다. 즉 신학은 사적인 것을 넘어 공적인 것으로 세상과 시대와 소통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신학이 이러한 부분에 일정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³⁹⁾

그러므로 공공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본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

36) 강사문, “광복 50주년(1995)에 대한 회년법적 적용문제”, pp.47-50. 강사문은 NCCK가 제시한 1995년을 회년에 적용한 문제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주로 회년을 소극적인 입장의 사람들로 보수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37) 박동현, 『다시 만나는 사람들』, (서울: 한들, 1993), p.207. 강사문, “광복 50주년(1995)에 대한 회년법적 적용문제”, p57.에서 재인용.

38) 대표적인 공공신학자인 Max Stackhouse는 자신의 자서전적 신학여정 고백기에서 자신은 다음과 같은 신학자들의 계보를 이어받았음을 밝힌다: Augustine, Thomas aquinas, Ernst Troeltsch, Paul Tillich, Jonathan Edwards, Abraham Kuyper, Reinhold Niebuhr, James Luther Adams. 맥스 스택하우스, 심미경 역, 『지구화·시민사회·기독교윤리』, (서울: the pastor's house, 2005), p.15.

39) 이는 해 아래에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없듯 신학도 새로운 것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공공신학은 창조된 신학이 아니라 신학의 전통 하에 발전된 신학이다. 그래서 공공신학은 기존의 신학과 연계되어 있고 대화가 되는 신학이다. 신학은 시대와 단절이 아닌 소통을 이끌어 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신앙의 학문적 노력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신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윤리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공공신학은 주장하는 것이다.

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에 답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적 존재(Private Being)’가 아니라 ‘공적 존재(Public Being)’라는 데서부터 공공신학의 입장은 시작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신학의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는 공공신학도 실천신학, 문화신학, 기독교윤리학의 범주와 교집합 되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공공신학은 특히 ‘교회의 사회참여’라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논의⁴⁰⁾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그렇다면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⁴¹⁾ “공공 신학이란 공적인 논쟁들이나 문화, 사회, 과학기술, 경제, 정치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며, 또한 비기독교 전통들이나 사회과학, 역사과학들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다.”⁴²⁾ 즉, 공적인 논쟁들을 신학 내뿐만 아니라 신학 밖의 모든 학문들과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자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하여 공공신학은 세계와 대화를 통해 인류에게 필요한 공동선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 한다. 물론 현대 사회가 다종교사회라는 것은 인정되고 있는 바, 다종교사회에서 기독교는 종교의 일부분일 뿐이기에 이런 이해관계에서 기독교가 독자적으로 통일의견을 개진하거나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했을 경우, 이 또한 동의보다는 갈등이나 외면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다종교상황에서 함께 통일의 문제를 의논하고 방법론을 찾아가는 일은 종교 간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이 한국사회 내에서의 동의와 공감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결국 이러한 토의의 장에서 적극적인 역할 혹은 일정한 역할을 공공신학이 할 수 있다.⁴³⁾

공공신학의 기본입장은 세계화되고 다원화된 세상에서 신학과 교회가 감당해야할 역할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에토스를 형성시키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청지기로 파송시키는 일을 사명(소명)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원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이러한 공동선(공동체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선)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타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돌봄, 섬김, 책임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 이것의 신학적 기초는 개혁신학의 전통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있고,⁴⁴⁾ 이 신학적 기초에 의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예언자직’, ‘만인 제사장직’, ‘만인 정치적 직위’를 감당케 하는 것이 공공신학이 말하는 청지기적 소명이요 역할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 신학적 토대로 제시하는 공공신학은 그간 한국교회가 제시한 통일에

40) 임성빈,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와 공공신학”, pp.15-16.

41) 본 발제에서 공공신학을 말할 때, 그 기초는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이해 하에 있는 것이다.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저서 중 다음 세 권의 저서와 두 개의 소논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신학과 정치경제학 : 현대사회에 있어서 크리스찬 청지기』(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지구화·시민사회·기독교 윤리』, 『God and Globalization(Volume 4): Globalization and Grace』,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소명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42) Max L. Stackhouse, 심미경 역, 『지구화·시민사회·기독교 윤리』, p.15.

43) 스택하우스는 이것의 필요성을 알았기에 <God and Globalization> 2권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44) 맥스 스택하우스, “소명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인 예언자, 제사장, 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사역을 설명하고자 한 것은 교의학의 전통적 방식이다. 이러한 전통은 종교개혁자 칼뱅(John Calvin)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언급하거나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1542년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제네바 신앙문답서’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무를 처음으로 교리화한 이후 이를 그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발전시킨 것이다.

대한 신학적 개념인 살롬을 중심으로 화해, 일치, 섬김(디아코니아)의 개념을 발전적으로 진일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신학의 통일담론에 있어 살롬, 화해, 일치, 섬김이라는 신학적 테제에 머무르던 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한기총이든, NCC가든 통일의 하나님의 주권론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개념 안에서⁴⁵⁾ 살롬, 화해, 일치, 섬김을 이해한 것에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리스도가 수행하신 삼중직의 개념이 통일논의에 있어 신학화된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있어 발전적인 역할로 보인다.

VI. 남북통일문제 해결에 대한 공공신학의 안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통일관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것은 불소통의 문제였다. 진보와 보수 간의 의견의 차이로 인한 언어불소통의 문제, 교회의 신학과 일반학과의 학제간 언어불소통의 문제, 신학자와 평신도 간의 언어불소통의 문제, 정부와 통일시민단체 간의 언어불소통 문제 등이다. 이에 공공신학은 이러한 불소통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기초한 남북통일문제 해결에 있어 공공신학의 역할은 대리자, 중재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리자로서의 역할, 에큐메니칼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통일시민교육의 실천의 청지기로서의 역할로 본다.

1.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리자로서의 역할

본 발제는 한국교회의 통일신학의 주요개념인 살롬을 중심으로 화해, 일치, 섬김, 희년의 개념이 공공신학의 신학적 입장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본다. 즉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은 불의를 향해 정의를 선포하고 살롬의 세상을 이루게 하는 것인바 통일신학의 핵심개념인 살롬을 아우르는 개념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의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으로 통일신학의 화해와 일치의 개념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그리스도의 왕직은 세상을 섬기심으로 통치하시고 이로써 세상과 다른 통치법을 보여주신 것으로 통일신학의 디아코니아(섬김)와 희년의 개념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통일신학의 개념들을 아우르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개념은 통일논의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을 청지기로 파송한다. 부연하면, 공공신학이 하고자 하는 역할은 사회전반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에토스(ethos)를 만들고, 평신도들의 윤리를 성숙시켜 평신도로 하여금 시민사회 혹은 비정부기구를 개발하게 하여 평신도가 사회의 머슴과 보호자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는 공공신학의 청지기론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것으로 내부적 신념을 외부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신앙공동체가 사회조직과 연대 혹은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다.⁴⁶⁾

45) 공공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에 한반도의 통일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통일을 위해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통일은 한국교회의 사명인 것이다. 이 사명에 의해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의 청지기로서 수고해야 한다. 맥스 스택하우스, 이상훈 역,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pp.36-37.

46) 맥스 스택하우스, 『지구화·시민사회·기독교 윤리』, p.121.

(1) 만인 예언자직으로의 응답 -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만인 예언자직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교회는 통일에 대한 응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즉 통일을 위해 주어진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여야 하고, ‘아직’의 통일이지만 ‘이미’의 통일로 보고 적극적 책임성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전적 책임성으로서의 통일에의 응답은 보수, 진보, 중도 진영 모두에게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립각에 의한 응답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정부든, 시민단체든, 교회든 공히 진보와 보수는 주로 대립각에 의해 갈등을 갖고 있는데⁴⁷⁾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통일의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도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공감의 여지를 늘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도의 이러한 입장은 단지 소극적 중도로서 자리하고 있다. 이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선을 찾아 이를 에토스와 해야 하는 책임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통일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만인 예언자직으로서 응답해야 한다. 즉 준엄한 책망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반도에 계시해야 하며, 한반도를 향하여 사랑을 담은 용기 있는 목소리로 불의를 비판하고, 적극적 참여와 투쟁을 통해 살해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남북 쌍방 간의 이념과 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군비감축협상 및 지리적 개방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제도의 통일과 사람의 통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⁴⁸⁾ 넷째, 통일이 후에 대한 적극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

(2) 만인 제사장직으로의 응답 -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제사장직을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 하는바,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의 제사가 계속 요구된다.(롬 12.1) 그리고 원수를 포함하여 우리 이웃에 대한 용서가 우리의 권리와 의무로 부여되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는 것의 첫 번째는, 과거사가 청산 되어야 한다. 둘째로, 남북 나눔의 점진적 증진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나눔이라는 것은 경제적 나눔을 의미함으로 남한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셋째로, 통일을 대비한 경제적 섬김의 준비를 해야 한다.

(3) 만인 왕직으로의 응답 - 만인 왕직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통일의 열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보수와 진보가 각을 세운 대립의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수 진영의 대표적 기관인 한기총과 진보 진영의 대표적 기관인 NCK가 공히 통일의 열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천명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통일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겠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되

47) 정부의 응답은 이승만-장면-박정희-전두환 정부 때는 반공 이데올로기로의 응답이었고, 노태우 정부를 기점으로 김영삼 정부까지는 북한에 대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일정 정도 인정함으로 온건한 반공 이데올로기로 응답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북정책의 적극적 완화인 햇볕정책에 의해 응답하였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보다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대북문제에 응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진보적 성향의 통일 시민단체는 남한의 민주화와 통일을 연계시키면서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응답하고 있고, 대중적 중도 성향의 통일 시민단체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떠나 대북 경제적 지원으로 응답하고 있고, 보수적 성향의 통일 시민단체는 북한인권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국교회를 보면, 통일 시민단체의 진보, 보수, 중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보수 진영은 선교라는 차원에서 통일에 응답을 했고, 진보 진영은 민족의 하나됨이라는 차원에서 응답을 했고, 중도 진영은 디아코니아(섬김)라는 차원에서 응답을 했다. 이는 하나의 응답이 아닌 대립각에 의한 응답이었다고 평가된다.

48) 전우택과 임성빈은 이를 ‘땅의 통일’과 ‘사람의 통일’로 구분하고, 김병로는 ‘체제통합’ 혹은 ‘제도통합’과 ‘의식통합’ 혹은 ‘인간통합’으로 구분한다.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임성빈 외, 『통합적인 통일과 그리스도인의 과제 II』,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김병로, “남북 사회통합 문제”, 기독교학문연구회 엮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IVP, 1994),

는 영역이라면 이것은 분명 공동선이다. 그러면 공동선으로서의 통일은 통일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중도 진영 또는 한기총, NCKK 또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또는 남한, 북한 등 모두에게 그 어떤 편견 없이 토의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세계화된 세상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통일논의의 중심인 공동번영 혹은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영역을 찾는 노력에 있어 남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는 것 보다는 시민사회 혹은 시민단체가 그 전면에 나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는 세계화된 시대의 변화 때문이다.⁴⁹⁾ 즉 현대사회는 제3의 힘인 시민, 시민사회, 시민단체가 정부와 파트너십을 갖게 됐다. 이 제3의 힘을 통일 프로젝트에 투입시키는 것은 뱀 같은 지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상호보완성은 그 추진세력이 민간이고 그 촉진자의 역할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이제는 통일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시민이어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제안이기도 하다.

2. 에큐메니칼 중재자로서의 역할

스택하우스는 공공신학을 에큐메니칼 공공신학이라고 명명한다. 공공신학은 모든 신학을 비롯해 모든 학문, 모든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⁵⁰⁾ 공공신학이 하려는 대화는 인류에 근거한 공동선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선을 찾기 위해 다양한 입장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과 개방적이고도 비판적이 대화를 하려고 한다.⁵¹⁾ 그러나 이것은 일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것이고, 이로써 살림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에큐메니칼이다.

이러한 에큐메니칼의 태도는 NCKK가 발표한 ‘88선언’ 6장에 있는 ‘한국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란 내용에서 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타종교, 타운동들과의 대화를 확장, 심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의식을 촉진시켜 공동연구와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바의 것으로 대화를 통한 통일방안 찾기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에큐메니칼의 믿음이다. 이런 에큐메니칼의 정신과 입장에서 한국교회의 통일방안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 공공신학의 신학적 태도이자 역할이다. 그러므로 에큐메니칼 중재자로서의 공공신학은 통일정치와 통일신학 간의 중재자로, 진보 진영의 통일신학과 보수 진영의 통일 신학 간의 중재자, 탈북자 신학 및 북한교회(조선그리스도교련맹)의 신학에 대한 중재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49)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 하나는 양 당국이 오랜 기간을 두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갈등과 반목을 해왔기 때문이다. 즉 통일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의 현실이 정치적 접근보다는 경제적 접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경제적 궁핍이 공개된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존적이고 생존적인 접근인 경제적 접근이 통일을 진일보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정치적으로 접근했고, 시민단체는 경제적,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50) 스택하우스는 그의 책 『대중신학과 정치경제학 : 현대사회에 있어서 크리스찬 청지기』에서 토론 혹은 대화를 강조한다. 그는 토론 혹은 대화만이 세계화된 시대에 살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류를 상대로 ‘토론의 동반자’ 혹은 ‘대화 공동체’라는 명칭을 붙인다. 맥스 스택하우스, 『대중신학과 정치경제학 : 현대사회에 있어서 크리스찬 청지기』, pp.136-137.

51) 맥스 스택하우스,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pp.33-34.

3. 통일시민교육의 실천의 청지기로서의 역할

한국사회가 시민사회가 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시민적 합의 없이 공공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공공의 문제의 해결주체는 시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문제는 시민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문제의 걸림돌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과정에서 시민이 주체로서의 권리만을 이해하고 의무와 책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⁵²⁾ 이처럼 시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이는 이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원인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에 대한 열망과 통일에 대한 시민 책임성은 별개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 현실에 있어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살림 공동체를 위한 한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필요성 강조하고 이를 디아코니아(섬김)을 통해 실천화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공공신학이 제안하는 것이다.⁵³⁾

주지하다시피, 남과 북은 지난 60여 년에 걸쳐 서로 다른 생활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질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이러한 이질화 현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통일 실현에 있어서 매우 시급한 일이다. 결국 이런 현실적 이질화 현상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교회의 통일시민교육을 통해서이다.⁵⁴⁾

통일시민교육은 무엇보다도 ‘통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통일이 우리의 종착역인가?’ ‘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등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풀어나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질에 충실한 통일시민교육은 ‘살림지향적’이어야 한다.⁵⁵⁾ 또한 통일시민교육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삶의 자세를 형성하기 위한 매우 복합적인 교육 개념이기에 어느 한 영역의 요소로

52) 이영철, “거버넌스와 결집로 빠진 민주적 책임성”,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추계학술대회, 2009.10.9.

53) 중도 진영의 입장에 있는 ‘남북나눔운동’은 통일시민교육의 실천의 청지기로서의 모델일 수 있다. 이 운동이 제안하는 네 가지 실천방안인 ‘영적나눔운동, 소식나눔운동, 살림나눔운동, 경건과 절제의 운동’ 중에서 ‘소식나눔운동, 살림나눔운동’은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민교육에 있어 한 역할모델이 된다고 본다. 이 운동은 소식나눔운동을 전개하여 북한을 바로 알아 가도록 하고, 살림나눔운동을 전개하여 북한의 경제적 곤란을 현실적으로 돕자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바른 정보와 바른 이해는 편향되고 왜곡된 북한 정보와 이해를 바로 잡아 줄 수 있고, 이로써 바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나눔이라는 것은 인류애에 근거한 민족애를 근거로 한 행동임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이는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54) 한국사회는 진작부터 공식적으로 ‘통일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강의가 ‘통일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통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택한 이유는 본 강의가 공공신학의 관점에 있기 때문이다. 즉 교회와 평신도의 역할은 시민사회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에토스를 만들어내는데 있다는 입장에 있기에 ‘통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택한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장신근의 ‘교회의 민주시민교육’ 개념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의 논문 “교회의 민주시민교육: 공교회와 공적 신앙의 관점에서”와 그의 책 『공적 실천신학과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55) 살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문화적 가치로서 정치적 접근이 아닌 생활에서 실천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가치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민족공동체를 넘는 인류공동체를 지향하는 차원이고, 정치공동체를 넘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차원인 것이다. 이는 다원화된 사회라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실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시민교육은 관용과 배려에 기초한 비폭력 평화운동을 지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과정으로의 통일시민교육은 한반도 안에는 엄연히 남북이라는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정현백,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 재정립 방안”, 민주평등자문회의 제62차 교육위원회. 2007.

서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통일이 제도보다는 사람의 통합이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볼 때, 통일교육의 중심적인 주제는 남과 북의 정체성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평화와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이질적인 요소의 공존이 된다. 통일의 과정은 이후 남북 주민의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을 수반하는 바, 이 과정은 수십 년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북 주민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주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문화적 체험을 필요로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편견의 해소’, ‘상호 존중’, ‘다름의 수용’, ‘남북 문화의 공존’, ‘차별의식의 해소’, ‘타협과 양보의 수용’ 등의 가치를 생활화·내면화하는 교육적 접근을 수반한다.⁵⁶⁾

결국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통일시민교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실현시킬 책임을 지닌 청지기로서 살도록 하는 과정이다. 즉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학습자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주체적 학습자들의 통일과 관련된 성찰의 과정을 매개하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계기로 작용할 때, 진정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의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이는 공공신학이 추구하는바, 세상에 거룩하고 도덕적인 에토스를 형성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훈련 및 파송과 연계가 된다.

VI. 맺는 말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대한 과제를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갈등의 일차적 원인은 이념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다. 건국 이후 한국사회를 이끌어 온 주요 사상 혹은 이념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가 그것이다.⁵⁷⁾ 이 깊고 깊은 갈등의 벽을 허무는 것이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⁵⁸⁾ 둘째로는, 다양한 통일의 의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자기주장만이 아닌 공동선을 찾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우선 정부의 열린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통일노력에서 시민들과 함께 통일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열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보다 더 응집된 노력을 한국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셋째로는, 한국교회는 통일의 청지기로서 통일에 대비한 대책을 섬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심리적·문화적 통일인 사람의 통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적 통일, 제도적 통일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사람의 통일은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단 걸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벌써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 일의 책임자는 교회인데 진정한 살림의 의미와 그 실천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신학으로 접근하는 통일 방안에는 의심(문)을 살 만한 것들이 있다. 즉 공공신학의 입장이

56) 이러한 가치들은 평화교육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이러한 대안적 논의는 통일교육을 ‘통일’의 문제에 국한시키는 시각을 확장하여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치 지우자는 것이다.

57) 이종호, 『우리 시대의 이념 갈등과 뿌리』, (서울: 쿠퍼, 2007), p.15. 물론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는 건국 이전부터 한국사회에 미약하게나마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반공주의는 건국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상에 의한 갈등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소위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은 그 갈등의 세월이 길고 깊다. 이것은 보다 강력한 흑백논리에 사로잡혀있고, 심각한 편견의 벽을 가지고 있다.

58) 통일에 대한 소원이 일치된다 해도 통일에 대한 입장, 특히 통일의 방법에 있어 이념에 따른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해지는 것을 한국교회는 그 내부에서도 겪고 있는 바이기에 이 갈등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상에 대한 일종의 구애(求愛)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당당해야 할 기독교가 세상과 다름과 대화를 하기 위해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더욱이 세상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에 따른 의심이다. 그러므로 공공신학이 세상에 대한 구애가 아닌 보다 당당한 도전자로 보이기 위해선 신학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선한 삶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공공신학이 하나님의 방법론을 제시함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이 너무 공격적이고 일방적이지 않느냐는 의문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이러한 것이 낯선 세상에 제공하는 것이 과연 세상을 공동토론의 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의 토론의 장에 불러갈 수 있느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신학이 제안하는 것은 너무 공격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격한 공격자가 아니라 적극적 제안자이다.

본 발제는 통일의 현실은 ‘아직’이지만 통일의 준비는 ‘이미’의 개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그 저변에 놓고 통일에 대한 신학적 당위성에서부터 통일방법론에 이르기까지 공공신학적 제안을 하였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과 ‘이미’라는 이중적 시간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 그러나 통일을 ‘아직’이라고 관점보다는 ‘이미’라는 관점에서 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했다가는 감당해야 할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염려이다.⁵⁹⁾ 그래서 일각에선 통일에 대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의 영역을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고, 이를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⁶⁰⁾ 이에 본 발제는 통일은 ‘아직’이지만 ‘이미’의 입장에서 읽고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59) 우리에겐 통독 독일의 앞선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통독 이후의 독일은 동병상련(同病相憐) 격으로 우리에게 깊은 조언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이를 잘 귀담아야 할 것이다.

60) 이러한 적극적인 제안의 한 예를 김병로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김병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과제”, 임성빈 외. 『통합적인 통일과 그리스도인의 과제 II』.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김병로, “남북한 사회 통합의 비전”, 한국리더십학교 엮음. 『하나님 나라 리더십』. (서울: 두란노, 2008).